



## **Heart & Intellect**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학술지**

**14<sup>th</sup> Journal**





- 2014년 2월 'Heart&Intellect' 제 4호 학술지 발간
- 2014년 3월 13일 2014학년도 동아리 신입생 모집, 확정
- 2014년 3월 15일 신입생 환영 운동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뒷풀이
- 2014년 4월 3일 학술모임 - 토의 (의료총파업)
- 2014년 6월 27일-28일 하계 Leadership Training  
차기 회장(김진영) 및 차기 부회장(정련숙) 임명
- 2014년 8월 28일-29일 하계 Study Group [ 생리학 ]
- 2014년 9월 4일 학술모임 - 논문읽기
- 2014년 11월 8일 '국가고시' 응원
  
- 2015년 2월 'Heart&Intellect' 제 5호 학술지 발간
- 2015년 3월 10일 2015학년도 동아리 신입생 모집, 확정
- 2015년 3월 14일 신입생 환영 운동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뒷풀이
- 2015년 4월 1일 학술모임 - 논문읽기 (당뇨)
- 2015년 5월 16일 '오진주 교수님'과 사제동행 프로젝트 참가
- 2015년 8월 29일-30일 하계 Leadership Training  
하계 Study Group [ 생리학 ]
- 2015년 9월 7일 차기 회장(정련숙) 및 차기 부회장(문예진) 임명
- 2015년 10월 29일 '국가고시' 응원
- 2015년 12월 4일 학술모임 - 논문읽기 (고혈압)

- 2016년 2월 6일 'Heart&Intellect' 제 6호 학술지 발간
- 2016년 3월 9일 2015학년도 동아리 신입생 모집, 확정
- 2016년 3월 12일 신입생 환영 운동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뒷풀이
- 2016년 4월 6일 학술모임 - 논문읽기 (임신)
- 2016년 5월 13일 '오진주 교수님'과 사제동행 프로젝트 참가 (경복궁)
- 2016년 8월 29일-30일 하계 Study Group [ 생리학 ]
- 2016년 9월 27일 차기 회장(문예진) 및 차기 부회장(김민주) 임명
- 2016년 10월 14일 '국가고시' 응원
- 2016년 12월 1일 학술모임 - 논문읽기 (치매)
  
- 2017년 2월 'Heart&Intellect' 제 7호 학술지 발간
- 2017년 3월 7일 2017학년도 동아리 신입생 모집, 확정
- 2017년 3월 11일 신입생 환영 운동회
- 2017년 4월 5일 '나이팅게일 선서식' 뒷풀이
- 2017년 4월 25일 학술모임- 논문 읽기 (천식)
- 2017년 5월 17일 '오진주 교수님'과 사제동행 프로젝트 참가 (국립 중앙박물관)
- 2017년 8월 25일-26일 하계 Leadership Training  
하계 Study Group [ 생리학 ]
- 2017년 9월 26일 차기 회장(김민주) 및 차기 부회장(박지연) 임명
- 2017년 10월 11일 '국가고시'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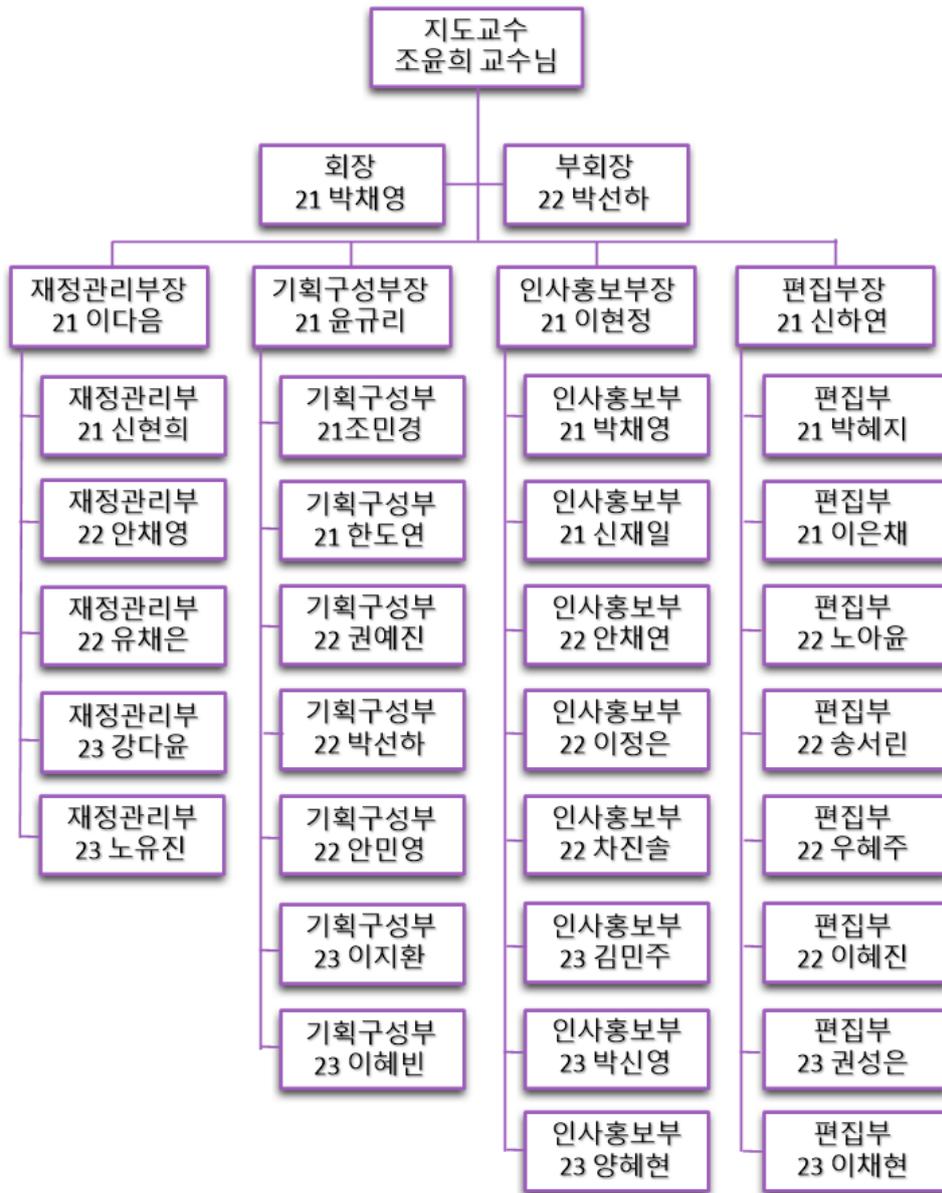
· 2024년 2월 21일

나이팅게일 선서식

## <목차>

1. 동아리 조직도 .....	9
2. 지도교수 발간사 .....	10
3. 회장 인사말 .....	11
4. 논문 읽고 생각하기 1 .....	12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인식 분석	
5. 우리들의 이야기 1 .....	17
- 간호학과 인원 증원	
6. 논문 읽고 생각하기 2 .....	20
- 국내 간호업무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의 가능성 탐색	
7. 우리들의 이야기 2 .....	27
- 연구병원내 부서별 특징 및 간호사 업무	
8. 논문 읽고 생각하기 3 .....	36
- 아동병동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과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불안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	
9. 우리들의 이야기 3 .....	39
- 화제의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실제 임상과 어떤 점이 다를까?	
10. 논문 읽고 생각하기 4 .....	43
-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영향요인	
11. 우리들의 이야기 4 .....	47
- 동기간면접제도에 대해	
<부록1> 학술지 제작 후기.....	50

# 1. 동아리 조직도



## 2. 지도교수 발간사



안녕하세요, Heart & Intellect 학술지의 14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Heart & Intellect는 2010년 간호학과 학술동아리로 창단되어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동아리입니다.

또한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는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지식을 담아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발간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검토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간호 분야의 현황을 검토하여, 간호 부서 별 특성과 간호학과 인원 증원이나 동기간 면접 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결과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학생들이 멋진 간호사로 성장하고, 간호학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잘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간호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Heart & Intellect가 성실하게 비전을 향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논문집의 발간에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과 지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동아리 Heart&Intellect 지도교수 조윤희**

### 3. 회장 인사말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학술동아리 Heart&Intellect 회장 간호학과 4학년 박채영입니다.

2021년, 단국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설렘을 안고 H&I에 지원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서툴던 시기를 지나 4학년이 되고, 간호학과의 유일한 학술동아리인 H&I의 회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 모두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깊이 생각할 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누군가는 동료와의 협력을, 또 다른 누군가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을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역량을 H&I의 활동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H&I의 대표 활동인 뉴스레터 제작과 학술지 제작을 통해 새로운 전문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고, 위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였으며,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가진 부원들 덕에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H&I는 학술동아리로서 학과과정 중에 배우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학적, 간호학적 지식과 이슈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최근 발행된 논문을 읽음으로써 전문적인 간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통해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학술동아리'라는 명칭으로 인해 H&I라는 동아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부원들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협력하며 간호사로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간호과정의 비판적인 생각과 근거를 가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H&I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매년 뉴스레터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또한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있는 간호 지식과 여러 이슈를 학우 여러분께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아리 부원 모두 저마다의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 미흡할 수 있지만, 이 학술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와 생각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H&I를 이끌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전해주시는 조윤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를 진심으로 아끼며 지도해주시는 학과 교수님들, 조교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동아리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항상 고생하며 힘써주는 우리 H&I 가족들에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학술동아리 Heart&Intellect 회장 간호학과 4학년 박채영 올림

## 4. 논문 읽고 생각하기 1

안채영, 유채은, 강다윤, 노유진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인식 분석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회복실2, 이승희,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주민호, 2023

#### 1. 서론

해방 이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간호사에게 '의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이는 국민의료법이 1962년 (개정)의료법으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인해 제정에 실패하였다. 간호법 제정시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서비스를 향유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간호법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 학생 역시 간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 학생조차 간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일반 대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의 포괄적인 업무 범위는 역설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일간지, 뉴스, 블로그 및 카페에서 언급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글의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요 일간지 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간호법'이 키워드로 포함된 뉴스 기사 및 온라인 게시글의 본문과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 문헌연구이다.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웹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및 페이지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로, 설정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투플렉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투플렉스는 형태소 분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양을 통한 추이 분석, 간호법 제정 관련 유의미한 연관어 설정으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긍정, 부정 단어를 통한 감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추이 분석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본문의 수를 파악하고 연관어 분석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함께 언급되는 주요 논의, 주제,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감성 분석을 통해 본문 및 댓글의 시기별 긍정, 부정 반응 추이와 해당 반응을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매체 별 버즈량을 바탕으로 추이와 인식 수준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뉴스 버즈량의 경우 간호법이 제기된 초기 21년 10월까지의 언급량은 낮았지만 22년 1월과 5월에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표명에 따른 여파로 가정할 수 있다. 이후 선거가 본격화되며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대통령의 행보와 간호계와 보건의료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댓글 버즈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페와 블로그 버즈량도 마찬가지로 1, 5월에 급증했으며, 카페 버즈량의 경우 이는 집단이 공통된 정서를 공유하는 형태를 가져 간호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블로그 버즈량의 경우 본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상반기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식 분석 결과 대중이 간호법을 다룬 매체에 접근하게 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간호사'였으며, 이는 본문에서는 가치중립적으로, 댓글에서는 논쟁의 요소로 사용되었다. 뉴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반대측의 비중이 높

으며 찬성 측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지 않게 다루거나 수동적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은 우호적인 경향을 띄고 있으며, 본질적 존재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하거나, 의료인들 간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경우 간호법 반대가 의사들의 경제적 논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적, 적극적 행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댓글의 경우 찬성측은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신의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반면 반대측은 수직적 위계를 강조하며 치열한 대립이 주를 이루었다. 블로그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립하며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등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초로 인식한 이들이 대다수였으며 이들은 원초적 관점에서 간호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4. 결론 및 논의

매체 분석 결과 본문과 댓글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 또는 중립적인 입장이며, 중립적 입장의 경우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중립적 위치에서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간호법 입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1년 전반기 12%였던 긍정적 인식 비율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후반기에 60%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과 주 쟁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던 21년 10월의 경우 방문간호사가 사고를 당하며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과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확산되었으며, 반면 간호단체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12월의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기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일방적 시각으로 침해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대중의 인식이 심화되며 대부분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인지할 수 있다. 언론 동향과 사회적 인식 분석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간호법 내용 인지, 역할 및 환경 개선에 공감 이끌어내기, 찬성 입장 표명이라는 3단계를 걸치는 대중의 인식 개선을 토대로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켜 재추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 5. 느낀점

### 1) 22학번 안채영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가장 와닿은 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힘들고 녹록지 않다고 느껴졌다. 코로나 시절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보며 국민들 모두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공감하며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간호법을 제정하려 할 때 같은 의료계열 직업 종사자들의 반대로 제정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논문을 읽어보며 간호법 내용 인지, 역할 및 환경 개선에 공감 이끌어내기, 찬성 입장 표명이라는 3단계를 걸치는 대중의 인식 개선을 토대로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하게 되었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또한, 한국의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무조건적인 간호대생의 증원만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간호사를 양성이 필요한 것보다는 환경의 개선을 통해 본래 있었지만 활동하지 않는 인력들을 총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던 시간으로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

### 2) 22학번 유채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인원 중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읽었을 때 씁쓸했습니다. 간호대의 인원 증대 보다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이 활동을 통해 그 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슈에 있어서 회피하기보다는 관심을 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3) 23학번 강다윤

간호법에 대해 교수님들과 각종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간호법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아서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본 연구의 서론의 의견에 공감하였고, 웹 크롤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한국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의 제언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4) 23학번 노유진

논문을 요약하며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간호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의 버즈량을 분석하여 대중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등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매체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활동을 통해 의료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의료 분야의 발전과 대중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 5. 우리들의 이야기 1 - 간호학과 인원증원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간호인력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면허간호사 수 1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6명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9명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활동 간호사 수의 부족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며 이는 간호사의 주요 이직 사유가 되고, 활동간호사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었는데, 2008년 이후 본격화된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은 신규간호사 수를 급증시켰으며 결과적으로 16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에서의 병상 당 간호사 수의 증가를 이끌어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2008년 1만1,686명에서 꾸준히 확대돼 16년 사이 약 2배 증가했고,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 간호사는 같은 기간 2.16명에서 5.0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팬데믹시기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채용의 영향으로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씩 늘려 2008년 1만1686명이던 간호대 정원은 올해 2만3183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간호사인력의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에는 임상간호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간호인력의 공급은 2030년 61만 7천명, 2040년 80만 1천명으로 예측되며, 수요는 2030년 28만 5천명, 2040년 32만 7천명으로 예측된다. 이를 상대지수모형으로 추정하면 결과 2030년 초과공급 19.6%, 2040년 초과공급 2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임상 취업률은 2020년 51.6%, 2030년 46.2%, 2040년 4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과는 상반되게 매년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공급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증가로 매년 2만명 이상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 퇴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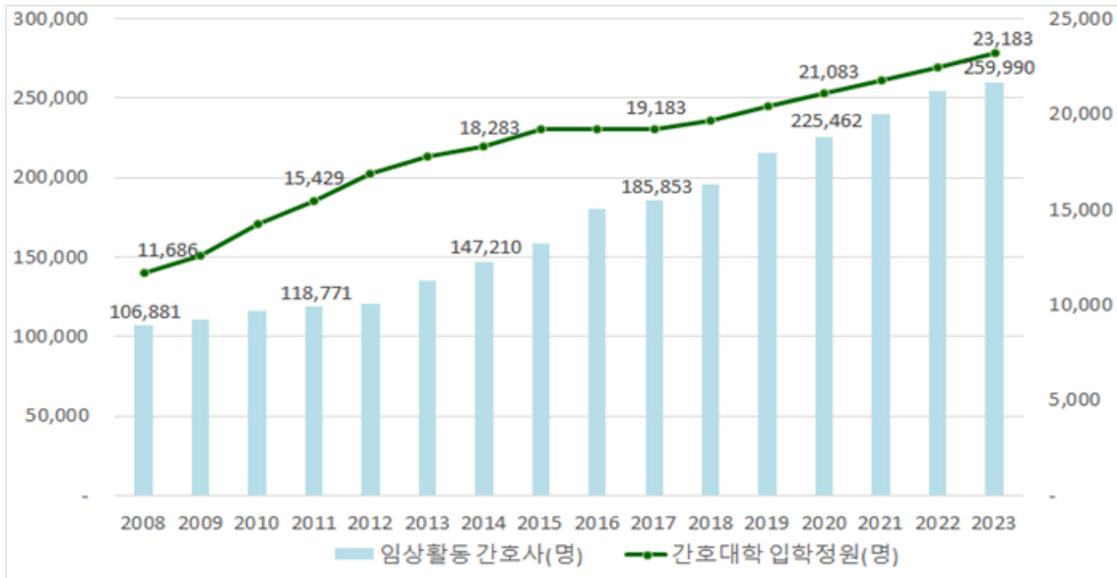
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 전체 이직률은 12.4%,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3.9%로 나타나며 이는 임상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환자 안전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가 8.0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94명으로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임상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1000명씩 간호대 정원 증원이 목표이며 증원 지속 여부 등은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간호계도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며 실습 장비 지원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정원 확대가 교육 여건 저하로 이어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계 내에서는 증원에 대해 반발 목소리가 크지만, 의사단체와 달리 간호사들은 파업 같은 단체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이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간호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높은 업무 강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대 졸업생을 아무리 늘려도 인력난은 그대로일 것이다. 지난해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48만1000여명이었지만, 이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활동하는 임상 간호사는 52.6%(25만4000여명)에 불과했다. OECD 국가들의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은 68.2%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간호협회 인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져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간호사의 초과공급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하며, 근무여건 및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속되는 공급은 오히려 간호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증가된 간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전문분야별, 의료기관종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무분별한 증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

우 개선책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활동 간호사 추이(2008~2023)



## 6. 논문 읽고 생각하기 2

권예진, 박선하, 안민영, 이지환, 이혜빈

### 국내 간호업무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의 가능성 탐색 연구

이한빛 · 문우종 · 김슬아 · 이진희 · 장옥주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1. 서론

한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동시에 건강 관심 증대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인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공지능 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경 및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헬스의 적용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는 의료 패러다임을 질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치료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의 도입은 환자 모니터링부터 간호 관리 계획의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해 점차 성능을 개선하며, 의료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간호 분야에서도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간호현실은 간호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에 상응하는 환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 기술의 도입은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관리를 개선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탐색하고 한국 간호 업무에 대한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2.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간호 및 인공지능 관련 논문들은 한국의 간호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를 발견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논문들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여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원격 의료 관련 논문에서 나타나는 원격 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허용되었지만, 국내 의료 시스템의 특성과 관련된 정책적인 제약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간호현실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사의 이직률 예측과 같은 논문들은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간호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내 간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와 현장에서의 탐색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그 외에도 의료 및 케어 로봇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경우,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과 안정성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재고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간호(nursing)', '간호사(nurs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키워드로 국내외 10년간(2013년-2023년)의 문헌을 우선적으로 검색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논문 940편을 추출했다. 추출된 논문은 3번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연구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선별하고, 각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검토하는 2번째 과정을 통해 직접간호와 간접간호의 의미에 부합하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논문 96편만을 추출했다. 96편의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목적에 의거해 5단계의 간호과정으로 분류된 후 한국 간호현실과 정책, 조직,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논문들은 2명의 간호학과 교수와 2명의 간호 경력자의 자문으로 제외되었다. 위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 논문 35편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논문에 대한 분석과 고찰로 한국의 간호 현실에 적용 가능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를 간호과정의 단계에 따라 분류, 제시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 적용 연구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인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선정한 35편의 논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간호업무 문제점의 개선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을 통해 한국 간호 현실의 3가지 문제점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간호사정 및 진단 단계에서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로 간호사정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신체적 정보 수집 기술을 이용하면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사의 업무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진단 단계의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과 집중치료병동 입원 비율을 줄이는 성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간호수행의 오류 감소와 환자의 위험예측을 통한 예방 중심 간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수행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투약오류와 약물유해 사례를 방지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감염, 욕창, 낙상 등 환자위험 사례의 예측으로 예방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의료인력과 비용의 소모를 방지하고 예방중심 간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간호업무의 부담 경감과 질적 간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자료 수집과 기록은 간호사의 기록업무 부담을 완화와 기록 속도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예측 모델은 간호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간호 업무의 다양한 문제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상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와 다방면에서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5. 느낀점

### 1) 22학번 권예진

인공지능을 접목한 간호업무는 앞으로 우리 간호계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할 기회이다. 한국 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할 업무가 많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직접 수행되는 간호업무보다 간호 수행을 위한 준비, 기록, 인수인계 등의 간접 간호 활동과 물품 세기 등 부가 업무들이 많이 밀리게 된다. 특히, 환자에게 중요한 전인 간호를 전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선 현재 있는 간호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는 하루빨리 인공지능의 접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업무에 가장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중 한 가지를 꼽자면 '투약'과 관련된 것이다. 환자에게 치명적인 투약 사고는 간호사에게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곤 한다. 투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 계산에 인공지능을 접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환자 개개인의 주사 부위 일혈/침윤 반응은 간호사가 일일이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이면 간호사가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직접 신체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 모니터링 기술이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질병의 치료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예방의 차원까지 더 나아가려면 인공지능의 기술이 환자 간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업무에 보조 역할로써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업무에 균형이 잡히고 간호사들은 직접적인 간호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이 기술에 대해 양면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자와 밀접한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과 같은 예비 의료진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2) 22학번 박선하

인공지능 기술과 간호업무의 접목은 한국 임상 간호사가 '간호'에만 집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1~3차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다양한 간호 술기 외적으로 물품 세기, 약 혼합하기, 인수인계 및 준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과포화와 겹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간호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로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간호 인력 확충, 효율성 증대와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의 간호 적용은 '예방 중심의 간호 패러다임'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정과 술기 절차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부담이 줄어들면 간호사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전인적 간호를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로서의 인공지능 적용에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 존재하지만,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사시의 오류나 결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 및 간호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예비 의료진,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 하에 신중하게 도입된다면 국내 간호업무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3) 22학번 안민영

인공지능을 적용한 간호관련 업무는 미래에 더욱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현재도 많은 간호사들은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들의 수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도입이 현재 간호사들을 도와주는 방면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들이 현재 직접 수행했던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에 이어 간호평가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해당 일을 수행하게 된다면 오류는 눈에 띄게 감소할 것임에도 틀림 없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도입한 간호업무는 현재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확연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점처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확실하게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점과 단점의 면을 조절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23학번 이지환

본 탐색 연구는 대한민국 간호 현실의 문제점을 인공지능 기술들로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에서 분석/제시한 추출 논문들은 대개 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예측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대상자의 수만큼 다른 상황과 질병, 회복의 경과를 보일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의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간호의 질적인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높아진 의료 비용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간호사의 부족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어오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정책, 윤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양화되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 사회의 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 상황에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만을 바라보고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간호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이런 연구들과 고찰들은 스스로에게도 간호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 5) 23학번 이혜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드러나 디지털 헬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 논문은 실제로 간호 현장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를 적용하는 경우를 고찰한 것인데, 이를 통해 실제로 인공지능과 기술을 사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알 수 있었다. 현 간호계는 1인당 맡는 환자 수가 많아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의료계에서 사용된다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인간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오류와 같은 실수들을 줄여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할 수 있다. 논문 요약을 통해 미래의 질적 간호를 위해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나 책임과 같이 과제가 남아있다. 21세기의 간호학도로서 단순히 간호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계와 4차산업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미래에 인공지능과 협업하게 될 간호 현장이 기대되었다.

## 7. 우리들의 이야기 2 – 병원 내 부서별 특징 및 간호사 업무

### (소아과/수술실/신생아실/정신과/중환자실)

#### 1. 소아과

##### 1) 소아과 특징

- 소아과는 아동들을 주로 간호하는 과이다. (내과/외과로 분리)
- 공포로 인해 우는 아이들을 달래가며 오더를 수행해야 한다.
- 생후 15일부터 20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아들이 오는 곳이다. 바이탈의 정상범위가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한다.
- 아동의 신체는 성인에 비해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약물계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물계산은 환아를 대상으로 할 때 더 복잡하다.)

##### 2) 소아과 간호 업무

- 소아의 성장, 발달 및 영양상태 정확히 평가하여 육아상담에 활용한다.
-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다.
-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간호를 수행한다.

##### 3) 소아과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1) 아동을 전반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소아과 간호사는 성인은 물론 아동을 전반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보통 성인과 아동은 자주 겪는 질병과 신체구조가 다르고, 활력징후 같은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세밀한 차이가 있으니 연령별 간호 수행 및 약물의 용량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간호교육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

아동은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간호교육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3) 아동에 대한 이해와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를 간호사가 먼저 잘 파악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은 아동에게 무서운 장소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말로 자세히 못 풀어내는 경우. 간호사들은 아동에 대한 신체 사정을 중요시 여기고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

## 2. 수술실

### 1) 수술실 특징

#### (1) 장점

- 타 부서에 비해 비교적 일정한 근무

타 부서와 달리 근무 스케줄의 변동성이 적다. 예를 들어, 한 주에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가 섞여 있는 병동 간호사와 달리 수술실 간호사는 월~금 데이, 주말 오프와 같이 비교적 규칙적인 스케줄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

- 전문성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적절한 보조를 위해 수술기구, 용어, 수술 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수술에 참여하게 되면서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 및 시술 영역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 보호자와의 대면 상황이 적음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술 준비 및 집도의 보조 등의 업무가 주요하므로 보호자/환자와의 대면상황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보호자/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

다면 장점이 될 수 있다.

## (2) 단점

### - 비교적 긴 적응기간

다양한 수술에 참여하게 되므로 분야 별, 수술 별 필요한 수술 기구, 해부학적 지식이 다르고, 집도의 별로 다른 수술 방식을 숙지해야 하므로 비교적 적응 기간이 긴 편이다.

### - 근무 환경의 특수성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이므로 높은 긴장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수술실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저온 및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술에 필요한약품, 방사선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및 의료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 - 업무의 특수성

수술을 보조하는 업무 특성 상 수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수술에 따라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 오랜 시간 서있게 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납으로 된 방사선 차폐복을 입고 수술을 진행한다면 신체적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 2) 수술실 간호 업무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환자관리, 수술보조, 수술지원, 수술 기구 및 물품 관리, 수술 관련 행정업무, 수술 환경 관리(온도, 습도) 등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그 중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에 따른 주요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순환 간호사(circulating nurse)

원활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간호사

- 수술 전: 수술실 준비 보조, 환자 관련 자료 점검, 환자 인계 받기, 환자 체위 준비

- 수술 중: 수술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 보충/전달, 수술기록지 작성, 조직 검사물/배양물 이동
- 수술 후: 회복실로 환자 인계, 마취회복실 간호사에게 인수인계, 수술기록지 완성

(2) 소독 간호사(scrub nurse) 실제 수술실 내에서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

- 수술 전: 수술팀 복장 착용 보조, 기구상 준비, 기구 및 물품 수량 확인
- 수술 중: 집도의에게 기구 전달 및 보조, 기구 및 물품 수량 확인,  
순환간호사에게 필요 물품 요청

- 수술 후: 기구 및 물품 수량 확인, 기구상 정리, 수술실 내부 정리

### 3) 수술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1) 의사소통 능력

여러 명의 의료진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므로 협력을 위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2) 적응능력

여러 분야의 수술, 집도의에 따른 수술 방식의 차이에 빠르게 적응하고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황에 대한 객관적 관찰 및 판단능력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수술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문제해결능력

수술이 언제나 계획과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의학적 지식

수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술과정과 해부학적 구조, 용어 등 의학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6) 꼼꼼함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업무 이므로 수술 전 후로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의 수량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신생아실

### 1) 신생아실 특징

- 신생아 간호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간호사에 의한 최상의 간호 서비스 제공
- 업무 표준과 기본에 충실한 안전한 간호를 제공
- 모유수유 교육을 통한 산모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
- 모유수유실 운영, 모유수유 동영상 교육, 신생아 간호 동영상 교육 실시
- 신생아의 경우, 초진은 출생 후 가능한 빨리 해야 함
-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분만실에서 초진을 해야 함

### 2) 신생아실 간호 업무

- 호흡기계 관리: 기관 삽관 및 발관 지원, 호흡기계 장비 적용
- 특수간호 지원: CRRT, ECMO, Hypothermia 등
- 보호자 교육: 모유수유, 캣러케어, 퇴원교육 등
- 중심 정맥관 관리
- CPR 및 분만 지원
- 신생아 청력검사
- 신생아 영양팀 지원
- 감염 관리

### 3)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 부드럽고 섬세함이 요구됨
- 뛰어난 직관력
- 희생정신
- 정직함과 생명존중 사상이 요구됨

## 4. 정신과

### 1) 정신과 특징

정신과 간호사는 보통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신과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다.

- 정신과 병동의 종류

(1) 폐쇄병동(=안전/보호병동):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병동

(2) 개방병동: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한 병동

- 정신과 병동 환자의 종류

(1) 심한 조현병, 폭력적인 양극성 장애, 자살시도를 한 우울장애, 술로 뇌에 장애가 생긴

알콜중독 등 정신과적 증상이 극심한 환자

(2) 가벼운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으러 오거나 치매 진단이나 병사용 진단을 받으러

오는

환자

### 2) 정신과 간호사 특징

(1) 특징

- 타 부서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예: 내과는 환자가 처음 입원할 때 한 명당 10분 정도 걸린다면 정신과 환자는 1시간 전후로 걸린다. 환자의 history taking을 출생 이후부터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인수인계를 할 때 처치, 검사보다는 있었던 일에 대한 인계를 한다.

- 몸보다 마음이 힘들다.

- 환자를 24시간 관찰해야 한다.

(2) 장점: 내과, 외과에 비해 처치가 적다. 내과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수액도 풀대가 위험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지 않는다.

(3) 단점: 자주 하진 않지만 검사나 처치를 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지켜봐야 한다. 투약의 경우에도 환자 한명한명의 투약 여부를 다 확인해야 한다.

### 3) 정신과 간호 업무

물품 카운트, 약 정리, V/S 측정, 협진 및 검사 진행, 투약, 식사량 확인, 배변 여부 확인, 소지품 검사, 일지 작성, 입원 환자 받기, 오더 확인, 라운딩 등

### 4) 정신과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정신과 간호사는 '인내'와 '강한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환자가 있으면 언제 폭력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긴장해야 하고, 폭언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성을 지켜야 한다. 또,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언성을 높이지 않고 언제나 단단하고 따뜻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정신과 간호사로서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별로 환자의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트리거를 피하고 환자와 안정적인 라포를 쌓기 위해 환자가 선호하거나 예민한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환자가 말하는 증상들을 무조건적으로 신뢰/부정하지 않도록 간호학적, 정신과적 지식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5) 정신과 간호사 Q&A

- 신규도 정신과 병동에 갈 수 있나요?

신규를 뽑는 곳도 있고, 안 뽑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가 내/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병동에서 경험을 쌓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 5. 중환자실

### 1) 중환자실 특징

중환자실은 내과계, 외과계를 막론하고 전신관리를 필요로 하는 위독하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수용하여 24시간 체제로 강력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치료간호를 하는 병동이며, 집중치료실이라고도 한다. 대상은 급성 의식장애 또는 혼수, 급성 호흡부전, 만성 호흡부전의 급성 증오, 급성 심부전, 가스 및 수면제 등의 급성 중독, 충격, 심한 대사장애, 개심술, 개흉개복술의 수술 후, 중증도 외상 환자 등이다.

이 병실에는 구급소생장치, 삽관절개기구, 인공호흡장치, 심세동제거기, 심장박동원, 심전계, 휴대용 X선촬영장치, 호흡기능 측정장치 등을 상시 비치하고, 일반병동보다 넓은 전용공간을 확보하며, 전담의사와 간호사(환자 2 : 간호사 1의 비율 이상)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자가발전장치를 갖춘 병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병동에 비해 간호사 대 담당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 2) 중환자실 간호 업무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로는 생체 신호 및 바이탈 체크와 중환자 감독, 호흡 보조 기기와 순환 보조 기기로 호흡 순환 관리, 약물 투여 안전성과 효과 및 부작용과 알레르기 반응 등의 약물 관리, 패킹과 붕대 교환, 상처 감염 및 치료와 상처 관리, 환자 체위 변경과 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적 지원을 통한 신체 및 정신적 지원, 응급 상황 대응 등이 있다.

### **3)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증 환자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 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8. 논문 읽고 생각하기 3

안채연, 이정은, 차진솔, 김민주, 박신영, 양혜현

### 아동병동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과

###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불안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간호부, 선임간호사 김용희, 최아름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장인순

#### 1. 서론

아동이 입원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체로 어머니가 함께 병원생활을 하며 간호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이나 대처양상이 아동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호사와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아동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기간 동안 전문가인 간호사와 부모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동병동은 환아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병동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과 불안, 대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동병동 환아 어머니의 대처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문헌고찰

본 연구는 아동병동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불안과 대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환아 어머니의 대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친화적 의사소통은 환아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여 환아를 편안하게 하고 부모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키고 잘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대처와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간호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부모의 역할과 돌봄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아동간호 영역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던 환아 어머니와 간호사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환아 어머니의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병동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과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불안, 대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퇴원하는 날 본 연구에 동의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은 Jeong이 개발한 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Kim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정보제공적 의사소통, 친화적 의사소통, 권위적 의사소통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항목의 평균이 높은 유형이 환아 어머니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환아 어머니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은 Choi와 Bang이 개발한 부모-간호사 파트너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상호성, 전문적 지식과 기술, 민감성, 협력, 의사소통, 정보공유, 조심성의 7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아 어머니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환아 어머니의 불안은 Spielberger의 상태불안 측정도구를 Kim과 Shin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환아 어머니의 대처는 McCubbin 등이 개발한 'The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도구를 바탕으로 Lee HZ와 Lee JW가 한국의 정서에 맞추어 개발하고, Yoo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문제해

결 중심, 긍정적 관점과 가족의 통합성 유지, 자아존중과 심리적 안정, 사회적 지지 추구를 위한 노력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202부 (96.2%)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하게 기재된 2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0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아동병동 환자 어머니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불안, 대처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아동의 적응,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환자 어머니의 대처는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또한 간호사의 정보제공적이고 친화적인 의사소통과 파트너십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도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넓혀 반복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유형과 환자 어머니와의 파트너십을 파악하는 연구 또한 제언할 수 있다.

## 9. 우리들의 이야기 3 - 화제의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 실제 임상과 어떤 점이 다를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그 안의 환자, 주변인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이 드라마에 묘사되는 장면과 실제 임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공황장애

3화에서 주인공 간호사의 친구인 유찬은 공황발작을 겪게 된다. 유찬은 단순히 체기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황발작은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다. 공황발작을 갑작스럽게 겪으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등 매우 고통스럽다. 숨이 점점 얇게 쉬어지며 이렇다 숨이 멎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공포감도 들게 한다. 하지만 공황발작의 더 큰 문제점은 이 최초 고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취미생활을 중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드라마에서 간호학생인 승재도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승재는 공황발작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 가서 홀로 고통을 견딘다. 또 커피를 먹지 않는 등 타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 승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그 이후, 공황장애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컨퍼런스에서 등장인물들은 코를 막고 빨대로 숨을 쉬게 하여 공황발작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승재가 보여준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는 듯한 묘사는 환자가 느끼는 경험을 정확하게 나타냈다고 평가된다.

3화 후반부에서는 간호사가 승재에게 치료를 권하고 의사가 유찬에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하는 장면이 있다. 간호사 다운은 승재에게 공황장애는 습관의 병이라며 앞으로 발작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특정 상황에 가면 공황발작이 반복될 것이라는 이런 경고식의 이야기는 본인 또한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두 번 죽이는 협

박처럼 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의사가 유찬에게 지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장면은 병을 인정하기 어려워 치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질환을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배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더욱 더 조심스럽게 다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드라마에서는 약을 먹고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공황장애의 치료가 묘사되었는데 계속해서 약만 먹고 외출할 때 지인과 동행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는 아니다. 이는 치료의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실제로는 더욱 복잡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 초기에 약물치료로 공황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된 이후에는 스스로 불안을 다스리는 요령을 배우고 실천해나가는 치료를 하게 된다. 치료에는 체력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과 금주도 치료의 한 부분이다. 그 후에는 회피 상황에 단계적으로 직면해서 괜찮다는 경험을 쌓아 가는 것도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실제 공황장애와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는 드라마에서 다룬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밀하며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다.

## 2) 카테터

드라마에서 환자는 18G 카테터가 삽입된 부위에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한다. 앞선 2명의 간호사는 "수액은 잘 들어가고 있으니 괜찮다", "아플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다른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이때 마지막으로 들어온 주인공 간호사가 환자의 불편함을 듣고 환자의 팔에 놓아져 있던 18G 카테터를 24G로 변경한다. 그러자 환자는 통증은 줄어든다. 드라마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 환자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간호사의 태도를 묘사했으나, 방영 이후에 이 장면이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18G 카테터는 직경 1.3mm 정도의 굵은 바늘이다. 응급 상황에서 수액을 빨리 주입해야 하거나 수혈을 시행할 때, 조영제를 투여할 때, 수술 전 출혈로 인해 수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테터다. 이에 비해 24G 카테터는 0.7mm 정도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바늘 중 가장

가는 카테터다. 따라서 24G 카테터는 혈관이 매우 얇은 환자나 어린이, 노인에게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카테터는 굵기 별로 모두 다른 사용 목적과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단순히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이유만으로 바늘을 바꾸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4G 바늘은 18G에 비해 훨씬 짧고 얇아 오래 유지가 어렵고, 잘 빠지기 때문에 일시적 통증만 줄여줄 뿐 환자에게는 오히려 부적합한 처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임상에서 카테터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카테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환자에게 굵은 카테터를 사용한 목적 (예: 시술, 수술)과 함께 얇은 카테터로 교체해 드릴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 카테터가 굵어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주사나 수액에는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여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다.

### 3) 투약방법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투약확인이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도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항상 입안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정신과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고 환자복 안으로 떨어뜨리거나 먹는 척하면서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이 약을 모아둔 후 자살시도를 할 수 있기에 투약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가 약을 입안에 넣을 때까지 주시하며 먹은 것을 확인한 후에도 바닥을 확인하여 떨어뜨린 약이 없나 살펴보아야 한다.

또 환자들이 약을 먹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뱉는 경우도 있는데 약을 먹고 바로 화장실을 간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간호사들은 이 환자에게 약을 맨 마지막 순서에 주는 방법도 있다.

다른 모습으로는 환자들이 약을 먹기 전에 시간을 계속 끄는 모습이 있다. 예를 들면 '물 말고 우유와 먹어도 되나요?'라는 질문 등을 하며 시간을 끄는데 이럴 때는 약을 먼저 주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질문이 끝나면 약을 준다. 그러나 약을 제공했는데도 시간을 계속 끈다면 약부

터 다시 회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외에도 추가 약이 있어 약봉지가 두 개가 됐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한봉지를 몰래 가져와서 줄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환자의 경우 처방을 전부 취소하고 약제에 약을 내린 다음 한 봉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간호사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

## 10. 논문 읽고 생각하기 4

노아윤, 송서린, 우혜주, 권성은, 이채현, 이혜진

###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영향요인

주영신, 장연수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들은 간호의 본질을 되묻고 기술적 측면만이 아닌 인간중심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볼 때 간호의 방향은 질병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총체적 돌봄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치료중심의 일률적인 행위가 강조되기 쉽고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사용 요구,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타 부서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간중심 간호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 중심간호 수행과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간중심 간호 수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간호환경발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 간호 수행,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을 확인하고 인간중심 간호 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 2. 문헌고찰

본 연구는 국내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하부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영역은 개별성으로 나타났다. 개별성은 환자를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가족 또는 의미 있는 사람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환자가 원하는 물건 반입, 오락 활동 허용, 가족 면회의 융통성 등이 이에 포함된다.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치료가 우선시되기에 우선순위가 밀려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증진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 참여 촉진,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병동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가족 참여적인 면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중환자실 면회규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호사들의 중환자실 면회시간 개방과 관련된 태도, 환자 및 보호자들의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환자의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간중심간호 수행이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관, 근무환경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와 대상자간에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이지자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이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특히 요구되는 능력으로 진정요법, 기관 내 삽관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이 제한된 환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거나 연명치료를 포함한 치료 방향의 계획과 결정을 돕는 옹호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중심으로 조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검증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이다. 하위영역에서 주장력, 조리성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위계적 의사소통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응급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자상태에 대해 설명하거나 보호자 상담 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가 권장한 의사소통 방법인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SBAR)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중환자실에서의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관과 근무환경이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지만, 전문직관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근무환경은 근무환경 하위영역에서 충분한 인력, 물질적 지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중환자실 환자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한 간호인력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 중심간호 수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1개와 10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 1개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은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 중환자 간호 수행 측정도구(PCCN)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공감, 개별성, 존중, 편안함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15문항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과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생체심리사회적 관점 5문항, 인격체로서의 환자 9문항, 권한과 책임의 분배 4문항, 치료적 동맹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은 GICC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자기 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즉시성, 지지,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이다. 전문 직관은 간호전문직관 29문항 측정도구를 18문항(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실무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근무환경은 간호근무환경 측정 도구인 PESNWI를 번안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9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4문항,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4문항,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3문항)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한 환경인 성인 중환자실을 배경으로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개인적, 조직적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했으며 연구결과 치료적,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인간중심간호 수행 증진을 위해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기존 문헌에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전문직관과 근무환경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보여 광범위한 문헌 고찰과 지역,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반복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끝으로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측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이를 활용하여 수행을 평가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 11. 우리들의 이야기 4 – 동기간 면접제도

### 1. 동기간 면접제도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의 최종 면접을 같은 기간에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24년부터 시행되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57개소와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102개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위 제도는 2026년 채용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그 효과를 평가해 지속·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2. 동기간 면접제도 시행 이유; '대기 간호사' 문제의 해결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휴직/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한 뒤, 필요시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를 운영했다. 이러한 '대기 순번제'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아, 동기간 면접제도를 통해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대기 순번제'가 야기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수개월간 발령 대기 상태에 놓이는 간호사들
- (2) 긴급 발령에 따른 임상 부적응
- (3) 중소 병원 근무 간호사의 대형병원 연쇄 이동,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력난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소재 대형 상급 종합병원 5개소(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는 '동기간 면접제'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후 '대한 병원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용 포기율이 29.6%에서 22%로 약 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병원의 입사 대기 상태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진다.

### 3. 2024년도 동기 간 면접제도가 적용되어,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을 실시하는 병원

최종 면접 시기	대상 병원
7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10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4. 동기 간 면접제도의 한계; 개인이 아닌 제도가 우선이 되어버린 간호사 취업 현장

간호사 개인은 이제 많은 면접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로 소수의 기회만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병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대기 순번제' 외의 여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리라 믿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중복합격이 초래하는 간호사 인력의 연쇄 이동과 이로 인한 인력난은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나, 중복합격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문제의 전체적인 해결은 불가하다. 또한 스스로 높은 연봉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선택해 자의적으로 입사 대기기에 놓인 간호사의 입장은 외면될 것이다. 좋은 병원에서 좋은 경력을 쌓고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간호사의 의견은 묵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제도의 입장만을 고려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 5. '동기 간 면접제도'를 향한 시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동기 간 면접제도'를 향한 간호학도들은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원하는 병원에

자유롭게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 순번제'를 통해 기다려서라도 상급 종합병원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하여, 중소 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 사회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탈과 인력의 부족은 다사다난한 문제가 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도 성급하게,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도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결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간호학도, 병원 그리고 사회,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법을 찾기란 쉽지 않으나,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타협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된다.

## <부록1> 학술지 제작 후기



### 20학번 강다윤

학술지의 마무리와 함께 항상 새 학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H&I에 들어온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제가 졸업을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조금은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이 활동 동안 동기들, 후배님들, 선배님들 덕분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이 동아리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모두들 고생 하셨습니다. 2024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이팅합시다!!!



### 20 학번 강유진

‘하이’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네요. 먼저, 2024년도 학술지 제작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이’에서 활동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술지를 제작하며 학문적 지식과 글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좋은 팀원들과 함께해 협업 능력과 소중한 인간관계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동아리에서 동아리원으로써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지만, 저희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하이’ 동아리원에게 행복한 날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 20학번 김수민

어느덧 마지막 학술지를 제작하여 뿌듯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학술지를 통해 간호 관련 논문 및 소식을 여러사람에게 알리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쉬어가기 코너를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재미를 느끼질 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의 순간이 합쳐져 매회 학술지 제작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무척 고맙습니다. 동아리를 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만큼 후배님들도 유익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동아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20학번 박세빈

벌써 년이 지나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에게 하이는 코로나 시기에 선후배님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이자 간호 학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술지 제작 외에도 간호신문을 발행하고, 동료들과 소통했던 추억들은 저의 대학생 활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보람찬 추억과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하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20학번 송채은

입학하고 첫 학술지를 만들 때가 오래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번 년도가 마지막 동아리 활동이네요. 바빴던 사망년 시기여서 동아리원들과 모임을 가지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매년 열심히 학술지를 만드는 것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지 제작하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 20학번 이영채

H&I를 가입하고 난 뒤 벌써 졸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 처음 2년은 코로나로 인해 선후 배분들과 많은 소통이나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 속상하기도 하였지만 방학 중 학술지 제작이라는 뜻 깊은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학술지 제작을 위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주신 동기분들, 후배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2024년에는 제가 없지만 하이를 통해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 하이 활동도 모두 화이팅하세요 !! ♥♥



### 20학번 이지윤

신입생으로 하이에 들어왔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졸업을 앞두고 어느덧 마지막 학술지 제작 후기를 남기게 되었네요. 4년간의 대학생활을 하이와 함께 채워나갈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뜻깊은 추억을 안겨준 하이와 앞으로 좋은 동아리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과 공부로 바쁜 학기 중에도 학술지 제작을 위해 열심히 참여해준 후배님들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 대학생활의 인연이 끝이 아닌 사회에 나아가서도 멋진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 20학번 전재연

그 동안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하이와의 시간을 마치게 되어 섭섭한 마음이 큼니다. 하이라는 동아리에서 뜻깊은 경험들을 하며 성장할 수 있어 제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시간의 소중함을 후배님들도 느끼는 날이 오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



### 21학번 박혜지

H&I의 일원이 되어 즐겁게 활동하던 날들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4학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학술지를 제작하며 여러 논문을 찾아보고 이슈를 생각해보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가며 동아리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학술지 제작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동아리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2023년 모두 수고하셨고, 2024년도 파이팅입니다!



### 21학번 신재일

어느새 차갑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개강을 앞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학술지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항상 힘들지만 완성되었을 때 읽어보면서 얻는 뿌듯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3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후배들을 만나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24년에는 동아리 부원들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 유익한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학술지 제작을 완료하여 기쁘고 매번 힘써주시는 교수님과 동아리 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1학번 신하연

H&I에 들어온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제가 4학년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학술지를 제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논문을 찾아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과 공부 이외에도 간호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간호 이슈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학술지 제작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선배님들, 우리 동기들, 그리고 후배님들까지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 21학번 신현희

1학년 신입생으로 첫 학술지를 만들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횡수로 3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이에 들어와 학술지를 처음 제작해보고 어색했던 순간이 스쳐지나갑니다. 올해 역시 큰 모임을 갖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움이 남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덕분에 이번에도 훌륭한 학술지가 제작될 것 같아 기대감이 큼니다. 학술지 제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후배님들께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하이에 들어와 얻었던 좋은 영향들이 앞으로 모든 하이 동아리원들에게 계속 되길 바랍니다!



## 21학번 윤규리

어느덧 동아리에 들어온지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 동아리에 들어오고 원하는 부서인 기획구성부에 들어와 어떻게 논문을 읽는지, 어떻게 학술지를 제작하는지 잘 몰라 헤매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학술지를 잘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학술지에 어떤 논문이 들어가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논문을 정하는 과정 속에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논문 선정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4학년이 되는 만큼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학술지에 많이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하이 동아리가 단국대 간호학과 유일의 학술지와 소식지를 만드는 동아리라는 점을 늘 기억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곧 만들어질 학술지를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동아리 부원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21학번 이다음

벌써 하이의 3학년 재정관리부 대표를 거쳐 4학년이 되었네요. 학술 논문을 정하고 우리들의 이야기, 재정관리부만의 대학원 뉴스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과 후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덕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하이이 단국대 간호학과 과동아리로서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동아리 존재 자체만으로 후배들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간호학과 힘든 스케줄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과정이 학생으로서 한 발자국 성장하는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이번 한 해도 멋지게 날개를 펼칠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21학번 이은채

하이에 입부하고 나서 첫 학술지를 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학년을 다니게 되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학술지를 제작하면서 다른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 동아리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21학번 조민경

이번 학술지 제작을 하며 간호 업무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논문을 통해 간호과정의 각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고, 특히 간호계획 단계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환자의 질병의 결과와 환자의 퇴원, 전동 가능성에 대해 예측할 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는 간호사에게 예측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어 간호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 업무에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간호사의 소모적이고 번거로운 작업을 줄여 간호 돌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직접 간호 활동을 증대하며, 환자 데이터의 추이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간호 관리 계획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제작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21학번 한도연**

H&I의 일원으로서 마지막 학년이 되었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학술지 제작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즐거운 1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학년부터 실습과 많은 과제에 힘들겠지만, 모두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 22학번 권예진

벌써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학술지 제작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주도적으로 학술지 제작을 진행하면서 하이의 일원으로서 성장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는 그저 논문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지고 학술지를 제작한다는 일에 부담을 가졌던 것이 생 각합니다. 그때마다 선배님들과 동기분들과 함께 학술지를 진행하며, 결국 다 같이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후배님들이 들어와 더욱 풍성한 학술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논문을 보고, 부원들과 논의를 하며 열정적으로 임했던 만큼 '간호'에 대한 관심 영역을 더 넓히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이의 2023 학술지 제작에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22학번 노아윤

올해 H&I의 학술지를 제작하면서 또 한 학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에서 활동한 덕분에 선배님들과 인터뷰도 진행해보고, 관련 이슈와 논문을 찾아보며 학과 생활을 더욱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선후배, 동기부원들과 함께 활동하여 이렇게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아리원들의 협력과 책임감이 있어 이번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 22학번 박선하

2022년에 논문 요약 중심의 학술지를 제작했다면, 올해는 검토와 우리들의 이야기에 참여하며 간호사와 간호학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위해 읽는 논문도 분명 배울 점이 많지만, H&I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학술지 제작에 참여하여 팀원들과 직접 관심 있는 논문을 함께 요약하고 검토, 탐구하는 경험은 매번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학술지 제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H&I 선배님들, 동기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2학번 송서린

간호학과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학년을 맞이해서 감회가 새롭고, 2년 동안 하이 활동으로 몇 번의 학술지 발행을 통해 간호학과와 전공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름과 겨울마다 시간을 내어 논문을 찾아보고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방학에도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학술지를 통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 뿌듯하고, 학술지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학년에는 실습과 이론을 배우면서 더욱 바빠지겠지만 하이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22학번 안민영

작년 처음 진행했던 학술지 제작에 이어 이번년도에도 학술지를 제작하게 되어서 먼저 뿌듯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과 진행했던 작년 학술지 제작과는 다르게 이번년도에는 후배님들과도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더욱 더 심도있고 전문성있는 주제로 동아리 활동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동아리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22학번 안채연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하이의 학술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 후배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2학년 선배가 되어 후배들의 글 작성을 검토해주는 입장이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1년간 제 자신에게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논문 요약을 검토하면서, 최근 아동심리에 대해 관심이 생겼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 유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아동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대처에 따라 환아의 치료 과정이 영향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를 투표할 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주제가 나와서 후배들이 어떻게 작성해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글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매체들이 간호사에 대해 편견과 잘못된 선행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들이 재밌게 잘 작성해준 덕에 글을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이번 학술지가 아마 저희 학번이 참여하는 마지막 학술지가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학번 간 교류가 적어 후배들에게 못해준 것이 많아서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그치만 이번 학술지를 후배들이 너무 잘 작성해줘서 내년에도 후배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이 파이팅!!



## 22학번 안채영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학술동아리 H&I에 들어온지 어느덧 2년이 되어 두번째 학술지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학술지 제작을 위해 논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사고를 넓혀보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라는 직업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술지를 잘 만들 수 있게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선배님, 열심히 참여해주신 후배님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4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만나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22학번 우혜주

1학년일 때 첫 학술지를 제작한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 새로운 학술지를 맞이하며 여러 감정이 느껴집니다. H&I 동아리에서 대표적인 활동인 학술지 제작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기쁘고 1학년 주도로 만들어진 학술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학술지를 제작하느라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했을 분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H&I 동아리 모든 분들 2024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22학번 유채은

학술지를 처음 제작한게 벌써 2년 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이 활동을 통해 여러 논문을 분석하고 다른 동아리 부원과 의논하면서 간호학과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인 간호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1학년분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학술지가 기대되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술지 제작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22학번 이정은

이 논문을 통해 간호사의 정보 제공적이고 친화적인 의사소통이 환아 어머니의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사소통은 간호사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친화적인 의사소통은 환아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하다. 환아와 그 가족은 친화적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사에게 편안함과 지지를 느끼며, 이는 치료 및 회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지식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1000시간 동안의 임상 실습을 하면서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해봐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 22학번 이해진

평소 간호사의 실태 및 전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막상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혼자서 양질의 자료를 찾고 읽어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고민하던 찰나 하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할 기회가 생겨 올해부터 활동을 같이하게 되었다. 아직 병원 실습 경험이 없어 임상 관련 지식이 부족했는데, 이번 논문 요약을 통해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중환자실이라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높은 업무강도 정도였다. 무엇이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간호수행을 하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했지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개별성이었다. 솔직히 내가 중환자실 간호사여도 환자의 개별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정신없는 중환자실 환경에서 개개인을 존중해주기라는 업무는 정말 녹록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개별성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환자가 잘 느낄 것이고, 또 이것이 환자의 간호와도 직결되니 중간에서의 타협점을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 가장 기본이지만 그만큼 등한시하기 쉬우므로 실제로 임상에 나가서도 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환자 상태를 간단명료하게 말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에 병원 실습을 나가서도 최대한 SBAR 기반으로 생각, 정리하게끔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22학번 차진솔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는 간호사들은 바쁜 일에 지쳐 무미 건조하게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고 있다. 솔직한 말로 임상에 나가게 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렇기에 위 논문을 통해 지금의 간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환자가 더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시키는 것 외에도, 간호사가 보호자와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과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에 여러 매체에서 보이는 간호사의 건조한 대응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환자의 적응과 회복에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면 더 나은 간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 노력이 비단 간호사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간호 체계를 개선해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덜어 간호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3학번 강다윤

단국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H&I 부원이 되었을때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2023년에 여름방학 활동으로 시작해 2024년 첫시작으로 선배님들, 동기님들과 학술지를 제작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다시 논문 분석을 도전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즐거웠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님들께 감사하며 2024년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3학번 권성은

간호학과를 다니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인간중심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영향요인에 대한 논문을 요약하게 되어 흥미로웠다. 논문을 정리하면서 성인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인간중심 간호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을 알게되었다. 성인 중환자실이 타 병동보다 인간중심간호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사실 잘 몰랐는데 타 병동 환자들보다 중증도가 높고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상대적으로 인간중심간호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이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일반적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 근무환경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인들 중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 자신이 어느정도는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치료, 질병 중심의 간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환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23학번 김민주

간호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 환자의 치료를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최소화 시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학과를 진학해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임상 간호사를 목표로 해 졸업 후 임상으로 가는 학생이 특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학술지를 읽고 환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 수월하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더욱 더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지를 제작하며 임상에서 간호사의 어떠한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저 또한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간호사와 환자보호자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이슈도 많고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간호사와 환자보호자의 관계가 치료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흐르길 바라는 바입니다.



## 23학번 노유진

2023년 단국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후, 다양한 동아리들을 접하던 중 H&I 에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떨렸는데,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첫 학술지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저는 동아리 내 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접하면서 간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직면하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스스로 발전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학술지 제작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간호 업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간호사가 된 후,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더 나은 간호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술지 제작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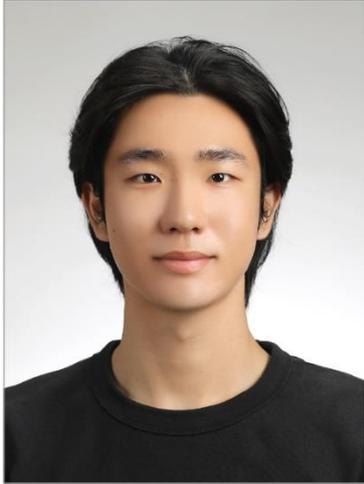
### 23학번 박신영

이번 논문을 통해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환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에 자부심과 큰 보람을 느꼈다. 환아는 나이가 어린 만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심리상태와 대처방법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보호자와 환자의 쾌유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문을 읽고 난 뒤 훗날 간호를 제공하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보제공적, 친화적 의사소통을 제공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그만큼 보호자들과의 소통이 많은 아동병동의 특성을 통해 간호사의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였다. 임상에 나가 많은 양의 업무에 치여 근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 힘듦이 자칫 불친절과 권위적인 말로 표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보호자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환자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친절하고 정보제공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23학번 양혜현

논문을 읽으며 아동병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나이가 어린 환아일수록 자신의 질병에 대한 표현이 어렵기에 부모를 통하여 환아의 상태를 파악하는 아동병동의 특성상 간호사와 부모의 안정된 의사소통이 환아의 건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아 어머니는 낯선 병원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정보의 부족함, 불확실한 미래, 아동이 치료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는 것 등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에 부모의 불안을 낮춤으로써 환아의 건강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것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친화적 의사소통, 정보제공적 의사소통을 활용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가끔 매체를 통해 의사나 간호사가 보호자분께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설명하거나 보호자의 질문을 귀찮아하고 대충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아동병동에서 이는 부모의 불안을 높여 아동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권위적 의사소통이 아닌 아이의 상태나 치료과정 등을 환아의 어머니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알게 되면서 아동병동에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23학번 이지환

처음으로 학술지 제작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논문을 요약하기 위해 꼼꼼히 읽어보고 연구의 주제, 방향성, 효용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으로 논문이라는 글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간호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찾아보면서 간호의 현실에 대해 더욱 관심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학술지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을 써내는 과정은 앞으로의 학업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동의 방향성을 잘 안내해준 선배님들과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기들 모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H&I 동아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23학번 이채현

2학기 '간호와 전문직'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간호 사회는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틀이 잡힌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 간호학도로서 1년, 그리고 이번 '동기 간 면접제도'를 알아보는 이 시간이 교수님의 말을 가장 와닿게 해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2023년은 특히 간호사에게 있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한 1년이라는 생각을 했다. 간호법 제정의 기각과 더불어 최근 결정된 '동기 간 면접제도'. 이는 우리 간호 사회에 있어 일종의 성장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한 시간이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중시된 의료계는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사회 위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의료인과 사회, 그리고 병원이 의견을 모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모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사실 간호학과를 재학하며 더 나은 병원으로의 취업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 왔었다. 결코 땀레야 땀 수 없는 간호 사회의 소식을 외면한 채, 간호 사회로 진입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동기 간 면접제도'와 더불어 간호 사회의 넓은 소식과 이야기를 들으며 '아차' 싶었던 때가 많았다. 간호 사회로의 진입 직전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닌, 그 이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23학번 이혜빈

하이 기획구성부 23학번으로서 학술지 제작에 처음 참여해서 직접 논문도 요약해 보고 원하는 주제를 논의해 조사해서 학술지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술지 제작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지만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학술지를 읽어볼 다른 학생들에게 우리가 선정한 주제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이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며 더 흥미롭고 완성도 높은 학술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같이 논문 제작한 선배님들과 동기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